

부대 앞 집 이야기

등장인물

엄마 - 40대 중반
이모(미경) - 20대 후반
딸(수경) - 중학교 2학년
소년(철이) - 16살
아버지 - 50대 초반
삼촌(희석) - 20대 초반
하 상사 - 40대 중반
김 하사 - 20대 후반

때

1979년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곳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 읍내와 외진 시골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산 중턱 집

무대

한쪽 귀퉁이가 부러져 세찬 바람이 불면 꺽이고 날아갈 듯한 플라스틱 슬레이브 지붕을
이고 서 있는 시멘트 집이 무대 오른쪽에 있다. 무대 왼쪽 경사진 언덕 위에는 군부대 위병
초소가 있다. 가끔 들리는 구령 소리로 군부대의 존재를 짐작한다. 관객석과 가까운 하수에는
하늘색 페인트로 칠해진 대문이 있고 깨 넓은 마당에는 뒷마루가 있다. 무대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돼지와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 축사가 무대 뒤쪽으로 있고 그 뒤는
산이다.

1막 10월 중순, 오후

조명 들어오면 꿀꿀거리는 돼지 울음소리 들린다. 마당 뒷마루에 앉아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습 보인다. 그때 열려 있는 대문으로 수경이 씩씩대며 들어선다.

하상사 아이구, 우리 이쁜 수경이 왔구나!

수경 에이, 씨!

하상사 어?

수경 (짜증 난 목소리로) 아, 아니 아저씨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모 (수경에게 다가가며) 무슨 일 있어?

수경, 마당 구석에 있는 양동이를 걷어찬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 마당을 왔다갔다 하며 썩씩대다가 뒷마루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때 심부름 갔던 소년이 들어오다가 수경을 발견하고는 반가워하며 수경 옆으로 간다. 수경, 벌떡 일어서서 자리를 피한다. 소년, 머쓱한 표정으로 좀 떨어진다.

이모 왜?

수경 아니야.

이모 아닌 게 아닌데. 우리 할가닥 또 학교에서 일 저질러서 혼났나. 무슨 일 있었어?

수경

삼촌 왜 그래? 삼촌이 다 해결해 줄게. 도대체 누구야, 어! 우리 이쁜 수경이를 화나게 만든 게.

수경 (계속 썩씩댄다)....

이모, 수경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는다.

이모 왜?

수경 이모, 명숙이 알지?

이모 어, 아침마다 학교 가자고 너 깨우려 오는....

수경 응, 그 거지 같은 게! 촌년이!

이모 허, 친구한테 그게 뭐야!

수경 맞지 촌년! 이산면 사는 주제에.

삼촌 여기도 이산면인데.

수경 아니지, 여긴 명주군하고 이산면에 딱 걸쳐 있는 경계, 저기 화장실 돼지우리 있는데만 이산면 촌이고, 여기 (슬레이트 지붕 가리키며)는 명주군 시내라고! 시내. 그러니까 명숙이는 촌년이고, 나는....

삼촌 (웃으며) 알겠어, 알겠어. 도시 아가씨! 그래서?

수경 그 미친년이 아버지 봤다고....

이모 응?

수경 아니, 그 미친년이, 에이 씨! 어제 아버지가 오토바이 뒤에 돼지 같은 여자를 태우고 산천교를 품나개 달리더래. (흥분해서) 못생긴 여자를 태우고!

삼촌 그게 뭐?

수경 아니, 그게.... 교실에서 큰소리로 수경이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에이 씨! 젊은 여자도 아니고, 못생기고 뚱뚱하대. 그 인간은 여자를 만나려면 좀 이쁘든가 몹매가 좋든가, 무슨 이해가 가게 바람을 피워야지. 진짜, 어휴! 창피해서!

삼촌 (수경이 머리를 ‘쿵’ 쥐어박으며) 이해가 가게? 하하, 이해가 가는 바람이 다 있구나 너는.

이모 (감주를 따라주며) 엄마한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마셔.

삼촌 그래.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며 수경에게 눈짓한다) 쇳, 알지? 엄마는 모르게.
수경 엄마가 모를 리가 있어?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 여자 저 여자 태우고 온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데. 집에는 오지도 않고!

옆에서 얘기를 듣던 하 상사가 다가온다.

하상사 그래,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 좋은 일도 아니고.
수경 (삐죽거리며) 아저씨가 무슨 참견, 군인은 나라나 지키세요.
이모 허, 말 뿐새하고는, 얘기 진짜.
하상사 (웃으며) 괜찮아요. 저 나이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 회수도 저 때는....

하 상사,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진다. 삼촌 눈치 보다가 얼른 솔장을 듣다.

삼촌 하 상사님, 건배!
하상사 아, 네. 건배!

멀찍이 서 있던 소년도 옆으로 와서 밥그릇을 들고 같이 건배하는 시늉을 한다. 삼촌과 이모, 하 상사 그 모습을 보고 웃는다. 그때 무대 뒤 축사 쪽에서 엄마 나온다.

엄마 (웃으며)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이모 아무 것도 아니야.
엄마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모 (손사래 치며) 아니, 아니야. 참, 그건 그렇고. 언니, 이 음식들은 다 뭐야?
 아침부터 뭘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잡채며, 전이며 잔칫상을 차려 놨네.
엄마 어, 네 형부 오늘 상 받는다고, 이따가 부대장님으로 군청 과장이랑 손님 오실 거라고...
이모, 수경 (동시에) 뭐?
삼촌 상?
엄마 공로상이라나 뭐라고 했는데. 예비군 중대장 하면서 고생했다고, 국무총리인가 뭐 누가...
수경 생전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무슨 상을 받는다고 상을 차리래. 웃겨, 아주.
엄마 수경아...
하상사 아, 올해는 중대장님이 받으시는군요. 역시!
엄마 일은 잘 하는 사람이니까요. 수경 아버지 따라갈 사람이 있나요.
수경 흥! 여자들 뒤풍무니나 쫓아다니는 주제에.

삼촌이 수경의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돌아 세운다.

수경 아, 왜 이래! 내가 못 할 말 했어!
엄마 거참, 애가 왜 그러냐 너는.
수경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난 못하네, 못해. 엄마, 그 아버진가 뭔가 하는 인간이

글쎄...
이모 그만 해.
삼촌 (서둘러) 수경아, 삼촌이랑 저기 동네 한 바퀴 할까? 어때?
수경 동네는 무슨, 저기 군부대랑 우리 집밖에 없는데 무슨 동네야.
삼촌 (빙긋 웃으며) 으이그 이 심통쟁이, 언제 철들래. 누나! 나 수경이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나 좀 주워 올게. 불 땔 거 얼마 안 남았더라.
수경 (발을 구르며) 나 안 해! 안 한다고 했어! 이씨, 삼촌 너나 다 해!
엄마 삼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수경 나하고 몇 살 차이도 안 있는데 뭐!
이모 수경아!

지켜보던 소년, 쪼르르 수경 옆으로 가서 선다. 그 모습을 보던 하상사가 웃는다

하상사 너도 가게?
소년 (고개 끄덕이며) 네.... 네.
하상사 넌 어째 수경이만 졸졸 쫓아 다니냐?
소년 (하 상사 빤히 쳐다보며) 아, 아저씨는 아줌마만 쳐 쳐다 보잖아요.
하상사 (멋쩍어하며) 뭐?
엄마 (당황하며) 얘가 무슨 소리야. (서두르며) 그래, 얼른들 가서 좀 조아 와.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겨울 나려면 나뭇단이라도 좀 넉넉하게 채워 놔야지. 올 겨울은 더
춥단다.
수경 안 가!
삼촌 자, 가자 수경아. 내가 가면서 재밌는 얘기 해 줄게.
이모 무슨 얘기?
삼촌 우리 수경이한테만 얘기해 줄 건데. 작은누나는 몰라도 돼.
이모 뭐? 치, 관둬. 나도 안 듣고 싶으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수경이가 헛마루에 틀썩 앉는다. 소년도 따라 앉는다.

엄마 수경아, 얼른 삼촌 따라 갔다 와!
수경 (눈 흘기며) 이거 좀 먹고, 배고파 죽을뻔했어. 오늘 체육 시간에 그 느끼 체육이
얼마나 빽세게 굴리는지, 아니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막 대할 수가 있지?
삼촌 뭐? 여자, 풋!
수경 삼촌, 왜 웃어?
삼촌 어린 게 여자라니 웃겨서. (귀여운 듯 손을 머리에 얹고 비빈다)
수경 (정색하며) 어, 이 아저씨가. 숙녀 대하는 에티켓이 꽝이네 꽝. 그러니 연애도 한번
못하고 이러고 있지.
삼촌 뭐?
하상사 진짜 연애 한번도 못한 거야? 그 얼굴로? 여자들 눈이 없네, 하하.
이모 쟤 쑥맥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냥 속이 없어도 너무 없어
엄마 무슨 소리야, 쟤처럼 잘생기고 착한 남자 봤냐? 남 주기 아까워. 어떤 여자가 채

갈지 복 받은 거지.

하상사 (웃으며) 수경 어머니 이상형이구먼 자네가!

삼촌 (쑥스러워하며) 누나도 참. (수경에게) 얼른 가자. 저기 산 올라가다가 밤도 줍고, 도토리도 줍고. 어때? 가면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 줄게

수경 무슨?

삼촌 궁금하지? 그러니까 가자. 해 지기 전에.

수경 마지못해 삼촌을 따라나선다. 옆에 서 있던 소년도 따라간다. 수경이 뒤돌아보며 오지 말라고 쫓는 시늉을 한다. 소년 멈칫하다가 다시 따라간다. 삼촌 웃으며 소년의 손을 잡는다. 수경도 삼촌 손을 잡고 축사 뒤 산으로 간다.

하상사 (툇마루 한쪽을 손으로 깨끗이 닦으며 엄마에게) 여기 좀 앉으세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모 그래, 언니. 이리 와! 이거 좀 먹구. 언니 파전은 진짜 예술이다 예술! 그렇죠, 하상사님!

하상사 그럼요, 음식 솜씨는 수경 어머님이 정말 넘버 원, 왔다십니다!

엄마 에이, 무슨

하상사 아, 아닙니다. 여기 예비군 훈련받으러 왔던 친구들은 다 알걸요. 수경 어머님 손맛. 그 지난번에 같이 왔던 김 하사도 또 데려와 달라고, 그때 먹었던 육개장 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이모 김 하사님이요?

하상사 아, 그때 보셨었나? 맞다. 이모님 얼굴 보고는 깜짝 놀라던데,

이모 네?

하상사 (멋쩍어하며) 워낙 미인이시라... 허허.

이모 아휴, 참.

하상사 제가 괜한 소리를,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엄마 우리 미경이가 인물이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이모 언니, 무슨 그런 얘길. 난...

엄마 (이모에게 눈짓하며) 어디 괜찮은 사람 있을까요? 살림도 좀 넉넉한 사람으로....

이모 언니!

하상사 음... 살림 넉넉한 사람이라면... 김 하사가...

엄마 아휴, 하사 월급... 그건 좀.

하상사 수경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걔 군대 말뚝 박지만 않았으면 명동에 있는 큰 중국집 사장할 애예요. 외동인데 엄마가 거기 사장이에요. 저번에 같이 외박 갔다가 들렸었는데 가게가 아주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엄마 김 하사네 집이 그렇게 부자예요? 그러면 그냥 사병으로 가서 병장 제대하지 왜 하사관을 갔을까? 하사관 생활 엄청 힘들다던데. 그래도 뭐 하상사님 같은 선임만 있으면 군 생활 편안하겠지만.

하상사 (미소 지으며) 제가 뭐 해 주는 게 있나요. 김 하사가, 군대가 체질이에요. 체질. 뭐 가끔 빠딱할 때가 있긴 한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 좀.... 아, 아니 뭐 그런 대로 좋은 놈이죠.

엄마 아.... (생각난 듯) 맞아요, 저번에 동원훈련, 예비군들 들어왔을 때 사람들 대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던데....

이모 그래?

엄마 아니, 뭐. 예비군들 통솔하려면 그 정도는 하긴 해야겠지. 현역도 아니고 예비군들 어려하겠어.

그때 오토바이 소리 들리다 멈춘다. 대문으로 군복 입은 아버지가 들어온다. 라이방을 쓰고 담배를 물었다. 맥아더 혹은 독재자 누군가의 모습과 닮아있는 그, 술 냄새를 풍긴다. 엄마는 아버지 근처로 다가가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다.

아버지 (엄마를 힐끗 보며) 별일 없지?

엄마 네. 근데 술을....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는 건 위험한데....

아버지 신경 깨, 오토바이 하루 이틀이야. 눈 감고도 타. (하죽 웃으며) 처제도 잘 지냈어? 안 보던 사이 더 이뻐졌네.

이모 아, 네.

아버지 어이, 하 상사는 웬일이야?

하상사 아, 네 중대장님. 일 때문에...

아버지 뭐? ... 무슨 일?

하상사 예비군 훈련 식수 좀 알려 드리려고.

아버지 (고개 끄덕이며) 아! 그렇지 그렇지. (마당을 둘러보며) 수경이는 아직 학교서 안 왔어?

엄마 지 삼촌 따라서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아버지 나무?

엄마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아버지 맨날 골골대는 놈이 무슨 힘으로 나무를 해? 산판 일도 힘들어서 관두고 누나네 빌불어 사는 놈이.

엄마 희석이 개, 아픈 걸 계속 참다가 산판 일 관둔 거예요. 원래 건강하던 사람도 힘든 일하다보면... 그래서 애가 그렇게 된거지.... (한숨) 그냥 나무 잘라 놓은 거 좀 주워 오라고 했어요, 수경이랑 같이....

아버지 (큰소리로 웃는다) 그럼 그렇지, 그 주제에 어떻게 나무를 하겠어. 지 몸도 건사 못하는 주제에. 그렇지, 줌어 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부실한지...

엄마

하상사 (엄마 눈치를 보며) 아, 참 중대장님! 오늘 표창 받으신다고....

아버지 어, 어 뭐 별거 아니야. 이거 (으스대며 끼고 있던 상장을 펼친다) 월남전 같은 전쟁터에서 베트콩 죽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촌 동네에서 당나라 군대 같은 예비군 관리 좀 했다고 받는 게 뭐 대단하나. 어쨌든 국무총리 이름이... 김철규, 아 그렇지.

하 상사에게 표창장을 보여준다.

아버지 맞지, 김철규. (갑자기 생각난 듯) 아이 씨! 대통령상은 그 새파란 놈, 알지?

안중시에 작년에 온 놈. 그놈이 받았어. 그 재수 없는 뻔질이 새끼, 에이 다
줄타기야, 세상 더러워서 원. 훠!

엄마, 하상사 옆으로 가서 표창장을 만져본다. 아버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본다.

아버지 (이모에게) 처제, 처제도 좀 봐봐.

이모 (시선을 피하며) 네.

엄마 (작은 소리로) 표...창장... 귀하는... 향토 예비군 ...

아버지, 엄마가 읽는 표창장을 빼어서 이모에게 준다. 이모 얼떨결에 받는다. 하상사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본다. 엄마 고개를 떨군다.

아버지 뭘 그렇게 떠듬떠듬 읽어! 배운 거 없는 티 내지 말고 가만 있어! 처제, 이거, 좀
읽어 봐. 이런 거 아무나 못 받아, 나니까 받지.

이모

아버지 뭐 해, 읽어 보라니까.

이모 머뭇거리다가 작은 소리로 읽는다. 하상사, 엄마 표정을 살피다가 이모 손에 있는
표창장을 낚아채듯 가져가서 읽는다

하상사 제가 읽어 봐도 될까요, 중대장님! (헛기침) 귀하는 반공 정신이 투철하며 국가
안보를 위하여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이에 표창장을... 국무총리 김철규.
우와, 멋지네요, 중대장님!

아버지, 하상사 얼굴을 흘끗 보고는 마루에 걸터앉아 막걸리를 들이킨다.

하상사, 아버지 옆으로 가서 전을 먹여 준다. 엄마에게 손짓으로 마루에 앉으라고 권한다.

아버지 (무뚝뚝하게) 식수 때문에 왔다고?

하상사 며칠 있다가 하반기 예비군 소집이 있잖아요. 사격하고 점심시간에
식사해야 되니까, 수경 어머님께 식수 대강 알려 드리려구....

아버지 (무뚝뚝하게) 고맙구만.

하상사 아휴 무슨 말씀을요. 중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는 거에 비하면 이건 뭐.

아버지 (웃으며) 그래, 하상사가 계속 신경 좀 써 줘. 내가 위낙 일이 많아, 알지 자네도.

하상사 아휴 그럼요.

아버지 여기 돼지, 닭 이런 거 키우는 거로는 힘들어! 내 뺑으로 부대 함바집이라도 하니까
먹고 사는 거지 안 그래? 그렇지? 어이, 한잔해!

하상사 아, 네네.

두 사람 얘기를 듣다가 이모가 슬그머니 축사 쪽으로 가려고 하자 아버지, 일어나서 이모
팔을 잡는다.

아버지 에이, 어디 가.
이모 (손을 빼며) 돼지죽 좀.
아버지 아직 밥 줄 시간 멀었구만, 같이 좀 앉아 있어. 어이, 처제도 한잔 해.
이모 술은....
아버지 왜? 처제 술 잘하잖아. 거기 부산서 매일 마셨을 거 아냐, 끊었어? 그럼,
나 한 잔 줘 봐. 응, 따라봐.

이모 머웃댄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술병을 받아서 따르려고 한다. 아버지 엄마 손을
밀친다.

아버지 누가 당신한테 따르래? 술은 한 살이라도 젊은 여자가 따라야....

하 상사, 얼른 술병을 받아서 따르려 한다.

아버지 왜 이래?
하상사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중대장님! 이렇게 좋은 날 축하주로다가!
아버지 (인상 쓰며) 우리 처제한테 따르라고 하잖아. 왜 나서고 그래?
하상사 에이 나서гин요, 제가 오늘 중대장님께 한잔 올리고 싶어서...
아버지 (하 상사 팔을 치며) 저리, 저리 비켜봐. 왜 자꾸 나서고 그럴까? 야, 하상사! 우리
처제한테 관심 있어? 허, 그래? 그렇구만... 하 웃기네 이자식, 이쁜 건 알아서....
하상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모 형부....
엄마 아휴, 여보! 하 상사님이 무슨.

아버지, 하 상사 역살을 잡고 흔든다. 그때 나뭇단을 메고 들어오던 삼촌이 뛰어와 말린다.
뒤따라오던 소년 구석에서 벌벌 떨며 숨는다.

삼촌 매형, 진정하세요.
아버지 이 손 놔, 말리지 마. 이 새끼가 이 집구석을 들락날락하는 게 수상쩍다 싶었더니
속셈이 있었어. 식수? 그거 알려주고 그냥 가면 되지 왜 엉덩이를 불이고 앉아
있어!(처제를 힐끗 보며) 훌아비 주제에 어디 우리 처제를 넘봐. 개 수작 하지마
새끼야, 우리 처제는 너 같은 건 안돼.... 저기 바다 건너 사쿠라... 히, 좋아해
알아, 히히....
엄마 여보!
삼촌 매형!
하상사 중대장님!
엄마 여보, 이러지 마세요. 하 상사님은 그냥 저희 좀 도와 주시려고...
아버지 도와 줘? 뭘?
엄마 축사일로는 먹고 살기가 그럴잖아요. (작은 소리로) 저번에 당신 대출받은 거
이자도 매달 내야 되고...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함바집이라도 해야... 그래야
이것저것...

아버지 이것저것! 아하, 이제 알겠네. 함바집 하면서 돈 번 거 둘이서 나눠 먹나? 그래!
이자 핑계는! 나한테는 돈 없다고 엄살을 떨더니만. 음.... 아, 아, 둘이. (화가
나서) 이 여편네가... 아주 사내에 환장을 했구만.

삼촌 매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경이도 듣는데.

아버지 내가 못 할 소리 했어? 이 새끼가 여자들 사는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기둥 서방
노릇 하는 거야 뭐야!

엄마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지 (엄마를 밀치며) 말도 안 되긴 뭐가 안돼!

삼촌 매형, 일단 진정하시고.... 수경아, 들어가서 얼른 숙제해. 얼른.

삼촌과 이모, 수경이와 소년에게 계속 눈짓하며 방으로 들여보내려고 한다. 소년은 겁을
먹고 구석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떤다. 수경이 씩씩대며 소리친다.

수경 악!

삼촌 (놀라서) 수경아!

수경 에이, 씨! 지랄하고 있네.

삼촌 어?

수경 지랄들을 한다고! 아버지라고 세 달 만에 와서는 웬 지랄이야.

엄마 수경아!

아버지 이게, 이게 미쳤나. 이 밤툴 같은 게 지금 뭐라는 거야!

수경 그래요, 나 미쳤어요, 미쳤어! 동네 여자들 다 후리고 돌아다니다가 세 달 만에
와서는 웬 지랄이에요. 지랄은!

아버지 봐, 봐! 지 애미년이 월 가르쳤길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 아버지한테
덤벼들고 난리야, 난리는! 이년이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리려나. 야, 너 이리 와.
이리 당장 와! 어린 게 이게!

삼촌 매형! 참으세요! 애가 요즘 사춘기다 보니까

아버지 이런 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굵은 나뭇가지를 들고 수경을 때리려 한다. 그 모습을 계속 보며
떨고 있던 소년이 마당을 빙빙 돌며 비명을 계속 질러댄다. 모두 놀라서 소년을 본다. 삼촌
소년을 달랜다.

아버지 저 새끼 왜 저래, 미쳤어? 저 새끼 왜 저래.

엄마 쟤가 겁이 좀 많아요. 조금만 험한 걸 봐도 무서워서 떨고.

아버지 병신 새끼!

수경 그만해요!

아버지 뭐! 이 쪼그만 기집애가 어디!

하상사 중대장님! 그만 좀...

삼촌 매형, 제발 좀.

아버지 이런 건 미리 기를 꺾어 놔야 정신 차리지. 이대로 컸다면 너처럼 지 앞가림도
못하고 평생 빙동거릴 판이야. 아주 정신 번쩍 나게 해줘야지 오늘.

삼촌 매형, 그만 좀 하세요. 애를 왜 때려요!
아버지 자꾸 그렇게 감싸고만 드니까, 애가 어른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너처럼
빌빌거리면서 누나, 아니 진짜 누나도 아니지 애미가 다르니까. 그런 사이에도
등쳐먹고 있으니까, 그냥 뒀다가 너같이 한심한 꼴 나면 어쩔거야, 어!
엄마 여보!
이모 형부...
하상사 종대장님!

삼촌, 표정 어두워지며 흥이 빠진 듯 그 자리에 가만히 선다. 하 상사 그사이에 아버지를
말리고, 엄마와 이모는 수경과 소년을 방으로 데려가려 한다. 아버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멀리서 지프차 소리 ‘충성’ 하는 위병의 구령 소리 들린다. 무대 점점
어두워진다.

암전

2막

1장 10월 말 해 질 무렵

조명 들어오면 수경이 톳마루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다. 삼촌은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낮게 노래를 흥얼거린다. 소년은 바닥에 원가를 그리며 놀고 있다.

수경 삼촌, 이게 은유야 직유야?
삼촌 응?
수경 그러니까, 이거 (몸짓을 해 가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어 오 오’
삼촌 (미소 지으며) 은유.
수경 맞아? 확실해?
삼촌 그 정도는 알아 삼촌도. 내 마음이 호수라는 거잖아. 그 호수에 오라는 거잖아. 내
마음이 곧 호수. 에이는 비다. 이건 은유지. 직유로 하려면 호수 같은 내 마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뭐 같은 뭐 뭐처럼.
수경 (눈이 동그래져서) 오, 오! 역쉬, 멋져 우리 삼촌!
삼촌 (피식 웃으며) 종학교, 아니 국민학교만 나와도 알겠다 그건.
수경 아냐, 아냐! 모를걸. 우리 삼촌만 알걸.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내 삼촌이라니!

수경, 삼촌 볼에 뽀뽀한다. 삼촌 멋쩍어하며 웃는다. 소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웃는다.

수경 (엎드려서 다시 숙제하려다가) 삼촌, 삼촌!
삼촌 왜?
수경 (숙제하던 공책을 덮으며) 있잖아. 나 오늘 몇 대 맞았다.
삼촌 어? 어디서, 누가? 누구야!
수경 맞을 짓 했어.
삼촌 학교에서? 어디 맞았어!
수경 (엉덩이를 가리키며) 요기.

삼촌 어쩌다가?
수경 그게, 우리 담임 내가 얘기했나, 흑발 마녀 얘기.
삼촌 흑발 마녀?
수경 머리를 새까맣게 염색하고는 길게 길렀거든. 완전 어이없어.
삼촌 (웃으며) 뭐가 어이없어?
수경 못생긴 게 남자들이 긴 생머리 좋아하는 건 알아 가지고, 어쨌든, 오늘 종례 시간에 교실에 딱 들어오더니 성경책을 펴라는 거야. 삼촌, 내가 미션스쿨 다니는 거 알지? 뻥뻥이로 가는 학교니까 미션이건 나무아비 타불이건 선택권이 없는 거. 뭐 어쨌든, 담임이 마태복음이라나 이사야라나 하여튼 거기 펴라고 하면서 읽는 거야. 하얀 눈이 내린 순백의 죄 없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읽다가 눈을 나한테 딱 꽂으면서 그러는 거야. 이 하얀 눈에 까만 재를 뿐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서라고.
삼촌 그래서.
수경 그래서, 뭐 그래서 일어났지, 맹그적대면서.
삼촌 뭐? 또 뭔 짓 했어?
수경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반 기집애들 다 같이 그런 거거든. 근데 딱 둘만, 나하고 상대편 우두머리 혜경이만 딱 일어난 거야. 비겁한 년들.
삼촌 또 무슨 일인데?
수경 아, 그냥. 일종의 땅따먹기 같은 거지.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다, 깜죽대지 마라 뭐 그런 거.
삼촌 야, 이수경! 너 깡패니?
수경 아니, 내가 깡패라서가 아니라 여자들은 서로 그냥 지지고 볶고....
삼촌 많이 맞았어?
수경 칠판 불잡고 서래. 그리고는 엉덩이를 빗자루로 다섯 대씩 갈기더라. 흑발 마녀가! 으흑, 힘도 좋아, 아주 그냥 살이 디룩디룩해서 힘이 장사야 장사!
삼촌 어디 봐! 약 발라야지.
수경 어허, 어딜 봐. 아가씨 엉덩이를.
삼촌 아가씨, 아이구, 봐 봐!

수경 훗마루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내뺀다.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소년에게 부딪힌다.

수경 아, 아야! 야!
소년
수경 왜 부딪혀!
삼촌 니가 부딪혔잖아.
수경 치, (바닥을 보며) 뭐냐 이건?
소년 다, 달.
수경 달?
소년 응, 다, 달이 막 따라 와. 내가 걸어가면.
수경 무슨 소리래.

삼촌 달?
소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수경, 관심' 없다는 표정 지으며 톳마루에 앉는다. 소년, 그런 수경을 빤히 보다가 미소 지으며 다시 막대기로 그림을 그린다.

수경 (작은 소리로) 쟤, 이상해.
삼촌 늦되어 그런 거야. 안 이상해
수경 아니야, 이상해. (손가락을 머리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며) 엄마는 왜 저런 애를 끼고 사는지 몰라.
삼촌 갈데가 없는 애잖아.
수경 그렇다고 씻기고 맥이고 재우고. 아주 천사 나셨어.
삼촌 작년 겨울 눈 오는 밤에 굴뚝 옆에서 자고 있더라며. 내복 바람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 삼촌 못 봤지? 아주 때가 꼬질꼬질. 아휴, 우웩!
삼촌 고안가?
수경 몰라, 쟈 저번에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니까 부들부들 떨고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누가 싸우는 것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 꼼짝을 못해.
삼촌 안 좋은 일 당한 게 있나. 딱하네.
수경 어쨌든 그날 엄마가 물 데워서 부엌에서 씻겼거든, 물이 완전 깜장 물이 나왔어. 뭐하다 왔는지 몰라. 아니 이 외진 데를 한밤중에 혼자서? 자기 집 주소도 모르더라니까,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해. 해까닥 했나... 아휴 몰라. 그 뒤로 계속 날 쫄쫄 쫓아다니는 것도 성가시고. 하여튼, 피곤해, 피곤해.
삼촌 너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착해! 집안일도 거들고, 간단한 심부름도 하고. 잘 챙겨 줘. 니가 누나잖아.
수경 웬 소리. 쟈 나보다 나이 많은 거 같지 않아? 얼굴이 쑀었잖아.
삼촌 (피식 웃으며) 너도 쑀았어.
수경 어?
삼촌 어제보다.
수경 뭐!
삼촌 농담, 농담.
수경 칫, 아휴 썰렁해. (수경 책을 보려다가) 삼촌 쟈 아까 바닥에 그림 그렸잖아, 달.
삼촌 달?
수경 응. 달. 달이 따라온다나 어쩐다나. 말이 돼? 달이 지를 왜 따라와.
삼촌 말 되는데. 너도 옛날에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밤에 너 업고 동네 한 바퀴 할 때. 등에 업혀서, 삼촌 삼촌 달이 따라와.' 그러면 내가 멈춰서서 '그래', 하고 돌아보면 '어 아니네, 지금은 안 따라와' 이랬잖아. 기억 안 나?
수경 그런 적이 있었어?
삼촌 너 꼬맹이 때 내가 많이 업어 줬잖아. 엄마가 자주 아파서 병원 가면 이모랑 내가 같이 있었잖아.
수경 그랬지, 엄마는 맨날 아프니까. 어쩜 그렇게 맨날 아프냐?

삼촌 일도 많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그럴겠지.... 그리고, 음 나 어릴 때 엄어 키우느라 고생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수경 우리 엄마가 업어 키웠어?
삼촌 응,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업어줬지. 누나가 우리 엄마랑 나이가 비슷....
(멋쩍어하며) 우리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우리 키우느라. 그래서 그런가....
누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자주 아팠어.
수경 아냐, 다 아버지 때문이야. 바람피우는 남편이랑 사는 여자가 어떻게 멀쩡하겠어.
삼촌
수경 삼촌, 그 옛날 기억 나? 삼촌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계모짓 한 것도 기억나?
삼촌 누가 그래?
수경 다 알아, 지난번에 이모할머니 왔을 때 엄마가 밤에 소곤소곤대면서 얘기하는 거
자는 척하면서 다 들었거든. 아주 못된 사람이던데 삼촌네 엄마... 아니 할머니.
삼촌 좋은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누나한테 많이 미안하고.
수경 에이 왜 그래, 그러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잊어버려 삼촌. 다 얼굴값 한 할
아버지, 아버지 같은 사람들 때문이지.
삼촌 얼굴값? 하하.
수경 삼촌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 삼촌은 잘생겼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잖아.
삼촌 다르긴 뭐.... 미안한 게 많아, 누나한테는. 산판 일도 그만두고 여기와서 밥만
축내는 거도 그렇고.
수경 어허, 이 삼촌이 또 왜 이러실까, 삼촌도 아파서 내려온 거잖아. 누나랑 같이 사는
게 뭐 잘못됐느냐, 뭐!

삼촌, 말없이 옆에 있는 기타를 가져다가 통긴다. 그런 삼촌을 훌린 듯 수경이 져다본다.
소년도 가만히 삼촌을 바라본다. 기타 소리에 섞여 돼지 꿀꿀대는 소리, ‘충성’ 하는 소리
들린다. 무대 점점 어두워진다.

2장. 10월 말 오후

같은 장소, 조명 들어오면 수경이 학교에서 돌아온다. 톳마루에 틸썩 주저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별령 눕는다. 축사 쪽에서 이모와 엄마 나타난다.

이모 수경이 왔구나.
수경
엄마 수경아!
이모 (수경 옆에 나란히 누으며) 자?
수경 응, 자.
이모 자는 사람이 말을 하니. (수경을 껴안으며) 그래, 나랑 같이 자자.
수경 아, 징그러.
이모 뭐가 징그러, 여자끼리.

수경, 벌떡 일어나서 엄마 옆으로 간다.

수경 엄마, 이모 징그러.
엄마 (빙그레 웃으며) 뭐가, 좋겠네. 안아 주는 사람도 있고.
수경 부러워?
엄마 부럽지.
수경 이리 와봐 엄마. 내가 안아줄게. 이리 오시오, 황여사!
엄마 얘가 왜 이래.
수경 안아 준다니까, 사랑하는 남자다 생각하고, (사랑가를 부르듯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크크
이모 (웃으며) 어머 얘 웃겨, 도대체 이런 애는 어떻게 낳은거유?
수경 사랑으로!
엄마 수경아!
이모 하여튼 별나, 뭐가 되려고 호호
수경 (정색하며) 사랑은 농담이고, 지랄, 바람둥이랑 무슨 사랑! 하 상사님이면
 모를까.
이모 어?
수경 그런 바람둥이가 내 아버지라는 게 싫어. 하 상사님처럼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면
 모를까.
엄마 얘가!
수경 뭐, 엄마도 하 상사님 좋잖아. 엄마 힘든 거 많이 도와주고 친절하고.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엄마 (화들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얘가!
이모 어머....
수경 에이, 농담. 농담! 치.
엄마 이놈의 지지배, 자꾸 허튼 소리하면 그냥....
수경 예서어, 충성! (수경 장난으로 경례한다)

세 사람 풋마루 앞에서 서로 깔깔대며 웃고 있을 때, 삼촌이 끄는 리어카를 소년과 하 상사
김 하사가 뒤에서 밀며 마당으로 들어온다.

하상사 잘 지내셨죠?
김하사 충성!
삼촌 (손수레 멈추며) 누나, 오늘 짬밥이 너무 많아서 하 상사님이랑 김 하사님이 도와
 주셨어요.
엄마 여러가지로 정말 감사해요.
하상사 별 말씀을요. 부대 앞 집 딱 한 집 있는데, 다 가족같이 지내야죠.
김하사 맞지 말입니다.
수경 (킬킬 대며) 맞지 말입니다. 어머 이상해. 군인들 말.
이모 수경아!
김하사 뭐 사실이지 말입니다. 하하

엄마 애가 워낙 버릇이 좀 없어요. 죄송해요.

김하사 아, 아닙니다. 여동생 같고 귀엽지 말입니다.

수경 귀여워? 허 참. 웃기지 말입니다!

하상사 하하, 수경이를 누가 말려. 김 하사 이해해. 하하

엄마 아, 이렇게 서 있지 마시고 전이랑 막걸리 한 사발하고 가세요.

이모 네, 잠깐 앉으셨다가....

하상사 아, 아닙니다. 빨리 들어가 봐야 돼서. 요즘 좀 팍팍해서요.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이래저래 조심스러운 게 많네요. 짬밥 가지러 오시는 것도 어떻게 될지.

삼촌 지금 부대 다 비상 상황이라 민간인이 들락거리면 안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리어커도 위병소 못 지나고 뒷문으로 해서 빙 둘러서 오르막 길로 오느라 시간 좀 걸렸어요.

수경 비상, 아, 비상...

이모 왜?

수경 아니 뭐 서점 아저씨도 그렇고 다들 뭐 좀 이상해서.

이모 뭐가?

수경 아까 집 오기 전에 문제집 사러 명희랑 길순이랑 같이 서점에 갔었거든, 애들이 ‘대통령 돌아가셔서 슬퍼, 어떻게 해,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냐, 아 무서워 이제 큰일이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어쩌냐’ 막 그러면서 서 있는데, 서점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대통령 죽은 게 그렇게 슬퍼 학생, 왜?’ 그러잖아.

김하사 그래서?

수경 (김 하사를 힐끗 보며) 그래서, ‘아저씨는 안 슬퍼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

김하사 웃어?

수경 어, 왜 반말, (김 하사를 째려보며) 뭐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왜 슬플까, 그래, 사람이 죽으면 슬픈 거니까 슬프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큰 일 날 것 같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야 ‘대통령 죽은 게 그렇게 슬퍼? 왜?’ 그 서점 아저씨는 그럼 안 슬픈가, 왜 안 슬프지?

엄마 그래?

수경 응.

이모 뭐, 다 슬프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니들 막 서점에서 오바하면서 떠들고 그러니까 그냥....

김하사 (굳은 표정으로) 거기 서점이 어디지?

수경 저기 시내 로타리 앞에 태양서점요. 이 동네 서점이 뭐 몇 개 되나.

김하사 음, 그래...

수경 왜요?

김하사 그 서점 아저씨랑은 친해?

수경 친한 건 아니지만 친절하니까 아저씨가. 원래 서울 사람이라요. 대학교 강사였다고 그랬나, 책 사러 가면 설명을 막 해 주거든요, 이런 촌 동네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 서울말이 아주 그냥... 막 녹아, 녹아. 그리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주변 눈치를 본다)

김 하사, 심각한 표정으로 하 상사에게 쿵속말을 한다.

수경 (시큰둥하게) 왜 저래?
이모 글쎄.
수경 엄마, 어쨌든 나 밥 줘. 배 고파.
엄마 밥 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수경 아니, 부뚜막에 밥 있잖아, 맨날 한 공기씩 퍼 놓잖아. 집 나간 사람 굽지 말라고.
엄마 그건 안돼!
수경 안 되긴 왜? 집에 오지도 않는 사람 기다리면서 밥은 왜 퍼 놓고 그래, 있는 사람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모 (엄마 눈치 보며) 얼른 밥 해서 줄게 수경아.
수경 치, 오지도 않는 사람은 왜 기다려! 바람나서 집엔 오지도 않는 사람을! 아이 써 거지 같애!
삼촌 수경아...

쿵속말을 하던 김 하사와 하 상사가 급히 나가려고 한다.

엄마 저기, 뭣 좀 드시고....
하상사 아, 아닙니다. 저희도 들어가 봐야지요. 여기 있다가 비상이라도 걸리면.... 시절이 뒤숭숭하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수경 어떨까요? 부대로 뛰어가요?
하상사 글쎄, 어... 그러네. 그래, 위병소 뛰어가서 하 상사 찾아, 그럼 나한테 연락 주겠지.
수경 오, 역시 믿을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어. (장난스런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며) 근데 하 상사 아저씨, 너무 친절한데.
삼촌 무슨 소리야?
수경 이유 없는 친절이라, 그런 게 있을까?
이모 (눈치 주며) 너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려고.
엄마 수경아!
수경 아니 뭐 그렇다고 그냥. (혼자 웃으며) 난 명숙이네 놀러나 가야겠다 히힛.
엄마 촌년이라고 같이 안 논다고 그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수경 명숙이네, 오늘 사과주 만든다고 했단 말이야.
이모 사과주?
수경 응, 걔네 과수원하잖아. 사과 떨어진 거 주워서 담근대. 아, 어쨌든 가서 사과도 얹어먹고, 사과주도 얹어 마시고!
엄마 뭐! 술을 마신다고?
수경 아니, 아니. 안 먹어 사과주! 크크 저녁 먹기 전에 올게!

수경, 다람쥐처럼 뛰어나간다. 그 모습을 보고 하 상사 웃는다. 심각한 표정의 김 하사가 하 상사 팔을 낚아채며 대문으로 향한다. 하 상사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나간다.

이모 수경이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귀여울까, 호호.

엄마 귀엽기는, 아휴 애가 월가닥에 공부도 안 하고, 뭐가 되려고.

삼촌 이쁘기만 한데 월. 수경이 같은 조카가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엄마 니 새끼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난 속이 터진다 터져.

삼촌 하하! 나도 수경이 같은 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엄마 어머, 너 장가가게? 색시는 있고?

삼촌 에이 장가는 무슨.

이모 언니, 쟤 여자 있나 봐!(깔깔거린다)

삼촌 아휴, 누나들 앞에선 찬물도 못 마시겠네. 아, 됐어. (축사 쪽으로 가려고 리어커를 잡다가 생각난 듯) 참, 누나! 김 하사 좀 알아요?

엄마 응?

삼촌 집에 자주 와?

엄마 아니, 세 번쯤 왔나, 저번에 사격장에서 한 번 보고 그 전에 잠깐 봤으니까.

삼촌 어때?

엄마 뭐가?

삼촌 사람이 좀 어떠냐고?

이모 왜? 무슨 일 있었어?

삼촌 아까 짬밥 가지러 갔는데, 취사장 뒤에서 사병들 군기 엄청 잡던데.

이모 그래?

삼촌 응. 좀 심하다 싶게. 막 조인트 까고 따귀 때리고

이모 어머, 말로 하지? 뺑뺑이를 돌리던가, 왜 사람을 때려!

엄마 저번에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그러더니.

삼촌 그래?

엄마 어, 좀 사람이... 좀... 그랬어.

이모 왜? 어떻게 했길래

엄마 그 점심 비빔밥 해서 막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속 보고만 있고 다른 사람들 다 먹어가는데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식사하셔야지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저씨가 머뭇거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이백 원이 부족해. 그래서 그냥 드시라고 드렸거든. 근데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서 엄청 허겁지겁 먹었지 그 아저씨가. 그때 김 하사가 와서 밥 그릇을 뺏어 버리대. 5분 전에 대기해야 한다고.

이모 어머 진짜?

엄마 응, 조금만 기다려 주면 될 것 같은데, 말도 못되게 하면서. 얼마나 민망하고 안됐던지. 사람이 좀... 팍팍한 거 같아.

삼촌 그럴구나. 사람이 영... 하 상사님한테도 좀 막 하는 거 같더라고. 누나랑 어떤 사이냐고 이상하게 묻고.

엄마 뭐?

삼촌 아까 리어카 밀면서 하 상사님이 이것저것 물는데, 좋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 사람은. 하 상사님이 많이 참아 주는 느낌이야.

엄마 그래? 하 상사님이 워낙 착하고 좋으시니.... 지난 번 우리 자니 죽었을 때

얼마나 우시던지...

삼촌 울어?

이모 맞아. 그때 쥐 잡는다고 쥐약 놔뒀었는데 우리 자니가 그걸 잘못 먹고.... 그날 하상사님이 살리겠다고 비눗물을 막 먹이고 그랬었는데, 결국 죽어 버렸어. 그때 엄청 우시더라.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봐, 난.

엄마 그래, 그랬어. (한숨) 아마... 딸 잊어버린 것도 생각나서 그러셨을 거야. 애가 몇 년 전에... 죽었대. 너도 알지? 전에 내가 한 번 얘기 했잖아. 딸 이름이 희수라고, 엄마 없이 키웠는데 얼마나 한이 되겠어.

삼촌 그렇겠지....

엄마 그래서 우리 수경이를 더 이뻐하는 것도 같고, 우리 집 일도 많이 도와주시려는 것 같기도 해.

이모 아...

엄마 그래서 저번에 미경이 짹으로 김 하사 얘기하실 때 믿고 좀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지. 하 상사님은 믿을만한 사람니까.

이모

엄마 근데 그게 아닌가. 난 김 하사 집도 잘 사는 것 같다고 하고, 인물도 웬만하고 해서, 우리 미경이랑 어떻게 좀 해 볼까 그랬더니.

이모 언니!

엄마 너도 이제 새살림 차려야지. 막말로 누구랑 살았건 어쨌건 결혼했던 것도 아니고 호적은 깨끗하잖아.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야 할 거 아냐. 니가 남자 좋아 그런 것도 아니고, 식구들 좀 먹여 살리려고 그런... 그렇게 좀 살았던거지 너만한 여자가 또 어디 있어!

삼촌

이모 언니, 그 얘긴 그만 해. 난 그냥 언니랑 수경이랑 희석이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무슨 소리야, 너도 좋은 짹 만나서 가야지. 희석이도 자리 잡아 장가도 가고.

이모 언니, 우리랑 지내는 거 많이 힘들어?

엄마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난 의지 되고 좋지. 수경이 아버지도 없는 집에 나하고 수경이만 덩그러니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난 좋지.

이모 그러니까, 언니. 내가 더 잘 할게. 같이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응!

삼촌 누나, 나도 얼른 몸 좀 좋아지면 보탬이 되게 힘을 써 볼게. 조금만 기다려 줘.

엄마 내가 뭐 니들이랑 안 살고 싶어 그러나, 그래도 이제 각자 가정도 꾸리고....
(이모 눈치를 보며) 아니, 아니야. 그래, 그냥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오래 오래.

그때 소년이 나뭇단을 질질 끌면서 뒷산에서 내려온다. 삼촌과 엄마가 소년이 끌고 오는 나뭇단을 받아서 구석으로 놓는다.

엄마 그냥 두라니까, 이따가 나랑 같이 가서 해 오면 되지, 혼자서 왜 올라가!
소년 시 심심해서.
삼촌 착하기도 하네. 그냥 쉬어 좀.

이모 그래, 들어가서 좀 쉬어 응!
소년 수, 수경이는...
이모 (웃으며) 수경이는 친구집.
소년 (고개 끄덕이며) 아.
엄마 얼른 들어가서 뜨뜻하게 좀 씻어. 옷에 낙엽이랑 다 묻었네 그냥.
소년 네.

소년 부엌으로 들어간다. 이모가 그 모습을 빠르게 쳐다본다.

이모 채는 어디서 왔을까?
삼촌 글쎄....
엄마 걱정이야. 요즘 들어 자꾸 까부라지네, 갑자기 핵 쓰러지기도 하고.... 애가 병이 있어서 내버린 건지, 좀 모자라서 길을 잃은 건지.
이모 찾는 사람도 없는 거 보면 고아 같아. 그 추운 겨울에 애가 혼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며.
엄마 에휴, 애는 착한데... 겁을 많이 먹어. 뭔 일이 있었던 건지 원.
이모 딱하네. 그래도 착해. 밥값 한다고 나뭇단도 주워 오고. 기특해.
엄마 그러게.

두 사람 얘기 듣던 삼촌 일어나서 뒷산 쪽으로 걸어간다.

엄마 어디 가?
삼촌 산에, 내가 나무 좀 해서 갖고 올게.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엄마 됐어. 기관지도 안 좋아서 밤엔 기침하느라 잠도 못 자면서.
이모 그래, 내가 언니랑 갔다 올게. 넌 좀 자.
삼촌 아휴 무슨 소리야, 사내놈이 놀고 있고 누나들이 산에 가냐. 말도 안되지.
이모 아니야, 넌 좀 쉬어야 돼. 애가 어릴 때부터 영...
엄마 다, 됐고 내가 갔다 올게. 한 두어 단만 주어서 끓어 올게.

엄마 일어서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삼촌 일어서서 따라나선다. 이모도 일어서려는 걸 삼촌이 막린다. 엄마도 뒤돌아보다가 이모는 들어가라고 손짓한다.

이모 (두 사람 등에 대고) 알았어, 알았어. 불 좀 때고 밥 좀 앗힐게. 해 지기 전에 와!

이모, 소년이 들고 들어온 나뭇단을 정리한 후 나뭇단을 들고 집 쪽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때 오토바이 소리 들렸다 멈춘다. 대문으로 예비군복 차림의 아버지 들어온다.

아버지 (술 취한 목소리) 처제!
이모 아, 네. 형부.
아버지 뭐 해?
이모 불 좀 때려고.

아버지 그래, 내가 좀 들어줄까? (이모 옆으로 다가온다)
이모 아,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할게요.
아버지 어허, 이렇게 무거운 건 남자가 들어야지. 멀쩡한 남자 놔두고 여리한 처제가 그런 걸 들면 쓰나. 허리 다쳐.
이모 아니, 괜찮아요.
아버지 허, 월 그래, 이리 이리 (처제 허리를 껴안으며 나뭇짐을 드는 시늉을 한다)
이모 앗!
아버지 처제, 그 사쿠라는 이런 거 안 도와줬었나 봐. 같이 살대고 살면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긴 부부도 아니고 그냥 혼자 처.... 허허... 그러면 더 잘 해 줬을텐데, 이쁜 애인한테 히히.
이모
아버지 어, 아, 미안. 아휴 그냥 이뻐서 그래, 처제가.
이모 형부, 제가 해도 되니까, 저 이만.
아버지 어, 어. 그래. (두리번거리며) 그런데 언니는 어디 갔어?
이모 산에...
아버지 빽하면 산에.... 산에 뭐가 있나, 이 여편네.
이모 나뭇단 좀 만들어 온다고.
아버지 희석이 시키면 되지 월 기어 올라가 산에는.
이모 같이 갔어요.
아버지 (눈빛 바뀌며) 그래? 수경이는?
이모 친구 집에....
아버지 아...

이모, 아버지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나뭇단을 들고 집 쪽으로 향한다. 아버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이모를 뒤에서 안다.

이모 형부!
아버지 어, 가만 좀 있어봐.
이모 왜 이러세요!
아버지 허,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사쿠라랑 살기 전에는 술집도 좀 나갔다며.
이모 형부, 이러시면
아버지 순진한 척은... 사쿠라 떠난 지도 한참 된 거잖아. 몸이 균질근질, 그렇지?
이모 형부....
아버지 이 집에 빌붙어서 살려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잖아 안 그래. 응!

아버지, 갑자기 이모를 끌고 축사 쪽으로 걸어간다. 끌려가지 않으려는 이모와 아버지 몸싸움이 벌어진다. 점점 힘이 빠진 이모를 끌고 축사 쪽으로 사라진다.
갑자기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닭 푸드덕거리는 소리 심해진다.
(긴 사이)

집 쪽에서 소년이 모습을 드러낸다. 수경이 노래를 흥얼대며 마당으로 들어선다. 소년이

얼른 수경에게 뛰어간다.

수경 야, 저리가! 왜?
소년 저기
수경 뭐?
소년 이, 이모.
수경 이모가 왜?
소년 저, 저기, 돼지우리.
수경 돼지우리? 뭐가? 짬밥 주려 갔어 이모?
소년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아니, 저기, 아...
수경 아이, 명청이. 답답하게 자꾸 그럴 거야!

소년 더 원가 말하려다 식은땀 흘리며 쓰러진다. 수경 놀라서 소년을 흔든다.
(사이)

수경 야, 왜 그래. 어, 이 땀 좀 봐. 야, 야! 정신 차려!
소년 저기....(손으로 축사를 가리킨다)
수경 왜 그래? 정신 차려! 엄마, 이모, 삼촌! 얘 이상해. 엄마, 아....

수경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치다가 축사 쪽으로 발을 딛는 순간 축사 뒤에서 옷을
추스르며 아버지가 나온다.

수경 어?
아버지 어, 어.
수경 뭐예요?
아버지 어, 돼, 돼지... 좀.
수경 돼지는 왜요?
아버지 어, 사료 좀 줄까하고
수경 아버지가요? 언제부터 사료를 줬다고?
아버지 시간이 좀 나서.
수경 네?
아버지 월, 꼬치꼬치.... 간다! (후다닥 대문으로 달려간다)
수경 (중얼대며) 뭐야....

정신을 차린 소년이 수경이 팔을 붙잡고 축사 쪽 손짓한다.

수경 신경 쓰지 마. 지가 언제 사료 주고, 집안일 신경 썼다고 축사 쪽에 얼씬 거려.
돼지나 팔아먹으려고 들여다봤겠지. 에이 씨, 재수 없어!

수경, 틋마루에 앉아서 가방을 뒤적거린다. 소년은 계속 마당을 빙빙 돈다.

수경 아, 신경 쓰여. 야! 정신 사나워. 으이 추워, 방에 들어가서 해야겠다.

소년, 다시 수경의 팔을 붙잡고 돼지우리 쪽으로 가려 한다.

수경 얘가 정말, 왜 이래!

소년 이, 이모...

수경 이모가 뭐? 말을 해 말을.

소년 이모가 아저씨랑.

수경 아버지랑?

소년 아, 아저씨....

그때 돼지 우리쪽에서 이모가 쓰러질 듯 걸어 나온다.

수경 이모!

이모, 화들짝 놀라서 몸을 움츠린다.

수경 왜 그래?

이모 어..... 응, 아니 그냥 어지러워서. 나 좀 들어갈게

수경 어... 괜찮아? 어디 아픈 거 같은데.

이모 (고개 들지 않고) 응, 응 괜찮아.

수경 들어가서 쉬어 이모. (생각난 듯) 참, 이모! 아버지랑 같이 돼지 짬밥 줬어?

이모 (화들짝 놀라서) 응?

수경 왜 이렇게 놀래. 아까 아버지가 돼지우...

이모 응, 으응,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같이.

수경 아, 그렇구나. 별일이네.

이모

수경 아니, 엄마는 생전 안 도와 주면서 이모한테는 엄청 선심 써, 웃기는 인간이야
아주!

이모

소년, 이모에게 다가와 쳐다본다. 이모, 고개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간다. 수경은 방으로 들어가는 이모의 뒷모습을 빤히 바라본다. 해가 저물고 돼지우리에서 짹짹대는 소리, 위병소를 지나는 트럭 소리 들린다. 조명 어두워진다. 암전

3막

1장 11월 중순

같은 장소, 마당. 바람이 심하게 분다. 슬레이트 지붕 덜컹거리는 소리.
방에서 엄마와 이모 나온다.

엄마 얘기 좀 하자
이모 무슨 얘기, 추운데 방에서 하지.
엄마 방에 철이가 있어서...
이모 자는 거 같던데.
엄마 철이 잠 귀가 밟아서...
이모 (조심스레) 왜?
엄마 너 어디 아프냐?
이모 어?
엄마 요즘 왜 그래, 밤에 잠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모 아니야, 안 아파.
엄마 무슨 일 있지?
이모
엄마 솔직히 말해 봐.
이모
엄마 너, 그날 무슨 일 있었지.
이모 (멈칫하며) 그날?
엄마 수경 아버지 왔던 날.
이모 어?
엄마 수경이가... 지 아버지가 돼지우리 뒤에서 나오더라고.
이모
엄마 뭔 일 있지?
이모 무슨....
엄마 아휴, 아니다....(인상 찌푸리며) 그래, 뭐했어? 돼지우리 뒤에서.
이모 (작은 소리) 월 하긴.
엄마 말해. 수경 아빠 나오고 좀 이따가 니가 나왔다며!
이모 돼지 사료 좀...
엄마 진짜?
이모 ... 어.
엄마 수경이 말로는 니 형부, 아니 그 인간이 옷을 추스르... 아, 아니 그리고 너는
어디 아픈 사람 같았다고.... 아, 아니야.
이모
엄마 아니지? 응! 아니지?
이모
엄마 (갑자기 흥분해서) 말을 해! 어! 병어리처럼 왜 그러고 있어, 응!
이모 그게....
엄마 (점점 더 흥분해서) 맞지, 그렇지. 그렇네. 그 인간이 또!
이모
엄마 너한테 찹썩댈 때부터 알아봤어. 그, 그 버릇 개 줄까! 동네 여편네들 다 후리고
다니는 건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처제를...
이모 ... (고개를 숙이고 울먹인다) 언니...

엄마 이 잡음을 그냥... (표정 변하며) 너, 니 형부한테, 아니, 아니다, 아니, (고개 흔들며)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틈을...
이모 (놀라며) 언니!
엄마 (큰 소리로) 아니 그러니까, 왜 여자 행세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모 언니 (흐느낀다)
엄마 (머리를 흔들며) 아, 아니 아니야! 그만, 그만.

리어카를 끌면서 들어오던 삼촌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본다.

삼촌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아, 아니야.
삼촌 왜 그래 누나?
엄마 아니라고, 아니야!
삼촌 작은 누나가 뭐 잘못했어? 누나.
엄마 아니야!
삼촌 작은 누나, 왜 그래?
이모
삼촌 ... (주변을 둘러보며) 수경이는?
엄마 (갑자기 큰 소리로) 어디 가서 또 놀고 있겠지.

삼촌 두 사람 눈치를 보며 쭈뼛거린다.

엄마 왜 그러고 있어, 들어가!
삼촌 어.

삼촌 지쳐서 휙정이며 걸어간다. 엄마, 그 모습을 보고

엄마 ...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삼촌 어, 그게... 혼자 끌고 오려니까 좀.
엄마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
삼촌 어, 지금 부대 난리가 나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엄마 왜?
삼촌 잘은 모르겠는데, 짐들 싸고 정신들이 없더라고. 하 상사님도 안 보이고.
엄마 그래?
삼촌 부대 이동이 있다나.
엄마 뭐?
삼촌 쉬쉬하는 거 같은데 얼핏 그렇게 들은 거 같아. 부대가 없어진다는 건지....
엄마 설마... 그럼 우린 어떻게.... (생각난 듯) 하 상사님은?
삼촌 취사병한테 물어보니까 하 상사님 며칠 전에 현병대 가서 안 오고 있는데?
엄마 뭐?

삼촌 몰라, 취사병이 그려더라고. 아참, 김 하사가 이제 짬밥 가지려 오지 말라고.
어떻게 하지.
엄마 뭐? 왜?
삼촌 자세히 말은 안 해 주는데, 하 상사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삼촌 민간인하고 뭘 어떻게 했다고 누가 투서를 했다는데.... 자세한 건 몰라.
엄마 (어두운 표정으로) 그래?... 걱정이네. 혹시 우리 도와준 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건
아니겠지. 예비군 점심밥 뭐 그런 거, 짬밥 가져온 거 그런 거도 문제가 될까?
삼촌 돈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웃끼리 좀 도와준 걸 가지고 뭐.
엄마 그래도....
삼촌 걱정마 누나. 하 상사님 워낙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잖아. 별일 있겠어.
엄마 그렇긴 하지만.... 어휴, 진짜 왜 이렇게 사는 게.... 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짬밥 없으면 그 사료값을 어떻게 감당하지... 요새 닭들도 비실비실하고, 추워서
축사 비닐도 좀 쳐야 하는데 어쩌누.
삼촌 내가 할게
엄마 니가 뭘... 해 본 사람이 한다고, 하 상사님 작년에 해 보셔서 도와 주시면 일이
쉬울텐데... (한숨 쉬며) 뭐가 다 이렇게 힘이 드냐...
삼촌 (이모에게) 누나, 왜? 무슨 일 있어?
이모 (어두운 표정) 아니야.
삼촌 왜?
이모 아니, 그게...
엄마 (큰 소리로) 넌 얼른 들어가! 춥다, 기침 또 도질라! 미경아! 들어가서 불 좀 때!
우두커니 서 있으면 뭐가 일이 되냐!

엄마, 거칠게 나뭇단을 들려고 한다. 이모가 눈치를 보며 나뭇단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 하는 모습을 삼촌이 지켜본다. 그때 수경이 콧노래를 부르며 대문으로
들어온다.

엄마 어디를 그렇게 쏘다녀! 공부하는 꼴을 못 봐! 언제 사람 될래, 응! 이러고, 평생
엄마처럼 이 꼴로 살고 싶어 너도 응!
수경 (놀라서) 왜 그래 엄마?
엄마 아휴, 서방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휴 지긋지긋하다 정말.
삼촌 누나...
수경 엄마, 왜 그래? 숙제 다 하고 좀 놀다 온 건데
엄마 그래, 평생 놀고먹고 그렇게 살아. 난 뺏골 빠지게 니 뒷치닥거리나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게!

엄마, 마당에 놀인 리어카를 움직이려 한다.

삼촌 내가 할게, 누나.
엄마 됐어, 내가 할테니까 너는 얼른 들어가! 너까지 아프면... 아휴!

엄마 혼자서 리어카를 끌고 축사 쪽으로 간다. 삼촌과 수경이 우두커니 그 모습을 지켜본다.

수경 왜 저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삼촌 모르지. 너도 몰라?
수경 나도 모르지. 아이 씨 괜히 나한테 난리야!
삼촌 정말 몰라? 이모하고 엄마 싸웠어?
수경 왜 싸워?... 어...(고개를 갸우뚱한다)
삼촌 몰라?
수경 글쎄... 그게... 아니 뭐 그걸로...
삼촌 왜? 무슨 일 있었어?
수경 아니, 엄마가 좀 그러기는 했어. 내가 얘기를 하니까. 뭐 근데 그게 뭐
삼촌 왜? 무슨 일인데.
수경 어 그러니까, 저번에 아버지가 왔었잖아.
삼촌 언제?
수경 그때, 아 삼촌은 없었나, 나무하러 갔었나, 하여튼 그때 내가 놀러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돼지우리에서 나오더라. 그리고는 이모가 좀 이따가 나왔어. 별 일이지?
그 인간이 언제 집안일 했다고. 하여튼 그날 아버지는 그냥 가 버리고 이모는 좀
아픈 거 같고. 하여튼 좀 이상해서 내가 엄마한테 아버지 욕을 막 하면서
얘기했거든, 근데 엄마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러고는 계속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아, 몰라. 엄마는 맨날. 아무래도 하 상사 아저씨가 요즘 안 오니까 기분이 좀...
그런가... 이 아줌마가! 그치 삼촌 그런 거 같지. 응?

삼촌, 표정이 어둡다. 뭔가 생각하다가 톳마루에 틀썩 주저앉는다.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어서 슬레이트 지붕 덜컹거리는 소리 커진다. 지프차 지나가는 소리, ‘충성’ 하는 위병의
고함 들린다.
무대 점점 어두워진다.

2장 11월 중순

마당, 나뭇단을 쟁기느라 수경이 바빠 움직인다. 엄마와 이모도 바쁘게 움직인다. 이모는
어딘가 아픈 것같이 보인다. 소년, 바닥에 그림을 그리다가 일어나서 같이 일한다.

수경 아이 추워. 아, 언제까지 이렇게 불 때고 살 거야? 큰방도 이제 연탄으로 바꾸면
안돼? 우리 집이 촌이냐고? 우리 집은 엄연히 이산면 아니고 명주군에 속해 있다고
어, 도시. 읍 아니고 군. 근데 말이 돼? 아궁이에 가마솥 불이나 때고. 당장
연탄으로 바꿔! 내 친구들 집은 다 연탄 땐다고!
엄마 돈이 어딨어.
수경 우리 돈 벌었잖아, 여름에! 함바집 하면서 벌었던, 그 돈. 돈 세다가 손에선 놓쳐서
선풍기 바람에 막 날리던 그 많던 오백 원짜리 지폐, 그거 다 어디 갔어, 어?
엄마 어휴 말해 뭣해. 시끄러!

수경 어디다 꼬불쳐 뒀어 어! 돈은 이런데 쓰는 거야 엄마.
이모 그만해 수경아. 불 때는 게 연탄보다 훨씬 따뜻해.
수경 칫, 그 인간이 또 가져갔지? 돈 비슷한 거 굴러다니는 꼴을 못 봐.
엄마 아니야.
수경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여간 이모도 엄마랑 똑같애. 융통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어쩜 친자매도 아니면서 답답한 건 똑같냐!
소년 마, 맞아, 똑같애. 아줌마랑 누나랑.
수경 누나? 지금 이모한테 누나라고 그런 거야?
소년 어.
수경 (피식 웃으며) 뭐 그렇긴 하네, 이모가 어리니까 누나, 뭐 그렇지 누나. 아줌마는
아니지. 아주 구분이 확실해요, 이럴 때는. 절대 모자라지 않아. 완전 멀쩡해.
근데, 아니 모자라. 이상해, 얘.
소년(웃는다)

이모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수경 (머리를 이모에게 들이밀며) 나도, 나도.
엄마 그만해! 미경아, 들어가. 비실대면서 뭐 하려 나와.
이모 괜찮아 언니.
수경 나도 들어가도 돼?
엄마 너는 일 좀 더 하고!
수경 에이 씨 나도 추운데. (엄마 눈치 보며) 이모랑 이제 화해했어?
엄마 뭐가? 언제 싸웠느냐?
수경 싸웠잖아. 그래가지고 삼촌도 그냥 가버리고.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수경 맞지 뭐, 기침 콜록콜록하는 삼촌이 이 추위에 산판에 또 가게 만들고. 어휴 거긴
더 추울 텐데 어쩔 거야 우리 삼촌.
엄마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거지 무슨...
수경 추운데 뭐가 가고 싶어. 내가 그날 얘기만 안 했어도...
엄마 (고개 돌리며) 무슨 얘기?
수경 그게....(이모, 엄마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아니 그날 엄마랑 이모 둘이 기분 안
좋았던 날, 삼촌이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서 아버지 왔던 날 얘기를 했거든, 이모
갑자기 아픈 거 같고 그랬던 그날.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
이모 뭐?
수경 에이, 괜히 얘기했어. 아 뭐 그게 뭐. 그렇다고 그 다음날 가버리냐. 그 얘기때문에
간 거 아닐지도 모르지. 그치?
엄마 뭐라고 그랬는데?
수경 아니 뭐 돼지우리 뒤에서 아버지랑 이모...

*이모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휙청거린다. 엄마와 수경이 이모를 부축하고 손 발을
주무른다. 그때 김 하사 마당으로 들어온다.*

김하사 무슨 일이예요?
엄마 얘가 갑자기 쓰러져서, 아휴 어떻게 해.
수경 이모!
소년 누나!
김하사 잠깐만요, (이모 목에 손을 대 보거나 손목을 잡아본다) 잠깐 실신한 것 같....

이모 눈을 뜬다. 당황해서 몸을 일으켜 세운다.

수경 아휴, 놀랬잖아 이모! 괜찮아?
이모 응, 응...
엄마 괜찮은거지?
이모 어, 언니.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구역질을 한다.

김하사 병원이라도 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월 잘못 드셨나.
엄마 체했나...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 서둘러) 아, ... 체한거지? 그렇지?
이모 어, 어..
수경 아이, 놀랬잖아! 요즘 왜 이렇게 비실대고 그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모 (구역질 하며) 아, 미 미안.
엄마 (이모 안색을 살피며) 들어가 미경아. 얼른!
이모 괜찮아 언니.
엄마 아휴 고집도... (김 하사 돌아보며) 참, 무슨 일로... 하 상사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괜찮은 거죠?
김하사 그게...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김하사 아, 그게... 함바 관련해서 아무래도 일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엄마 네?
김하사 아시잖아요. 요즘 시국이 뒤풀어진 거. 이럴 땐 바짝 몸을 사려야... (사람들 눈치를 보며) 혹시 하 상사가 따로 무슨 얘기한 건 없죠?
수경 (김 하사를 째려보며) 하 상사가?
엄마 따로, 무슨 얘기를...
김하사 아 그러니까 그게,,, 함바 하시면서 수익을 좀 나눠 달라거나, 뭐... 간단히 얘기해서 돈 거래 비슷한 거... 뭐 그런.
엄마 네?
이모 그게 무슨...
김하사 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곁으로 봐서 그 사람을 잘 모를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그런...
엄마 에이, 김 하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하 상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김하사 글쎄요. 그거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수경 어,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이상한데. 친한 척하다가 뒤통수치던 혜경이 같은
년이랑 비슷한데 이 아저씨!

이모 수경아!

김하사 (기분 나쁜 듯) 쪼그만 게 벼룩없이.

수경 쪼꼬만게!

엄마 수경아!

수경 그럴잖아 엄마! 착한 하 상사 아저씨, 무슨 흄이 없나 영탐하려 온 거잖아. 우리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고.

소년 (멀찍이 서 있다가 큰 소리로) 그, 그래, 맞아!

김 하사, 소년을 노려본다. 소년 겁이 나는지 이모 뒤로 가서 숨는다.

엄마 아휴, 얘가 월 잘 몰라서. 죄송해요! 어쨌든 저희는 하 상사님이랑 돈 거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사는 게 영 시원찮으니까 좀 도와주신 거 밖에는.

김하사 그러니까요.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월로? 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이 어딨어요 그냥이!

이모 하 상사님은 저희 집 사정이 딱하니까... 그냥....

김하사 그냥, 뭐까요?

이모 그게, 그러니까...

수경 에이 씨!

엄마 수경아!

김하사 이모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집 사람들 뭐가 그렇게 딱한 사정인지 (하죽
웃으며) 부산에서... 그, 뭐... 현지처 하셨던 거? 아, 죄송 죄송. 아니면
중대장님의 동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은 거, 뭐 그런 거....

엄마 김 하사님!

수경 이 군바리 아저씨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가요! 가!

김하사 뭐! 군바리, 이 쪼꼬만게 벼룩없이!

김 하사가 수경에게 큰 소리를 치자 소년이 달려들어 김 하사 조인트를 깐다. 순간 김
하사가 소년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수경, 엄마, 이모 놀란다.

김하사 집 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부모가 변변치 않으니까 애도 이 모양이지! 저 새끼는
또 뭐야, 병신 같은 게!

김하사, 무서운 표정으로 겁 주듯이 소년 근처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있는 닭똥을 밟는다.
화가 나서 군화로 바닥을 쓱쓱 문댄다. 소년이 그린 그림이 지워진다.

소년 어, 내 내 그림. 달이, 달이.

소년이 김 하사를 밀어내려 애쓴다. 김 하사 재밌다는 듯 소년의 그림을 군홧발로 문질러
없애 버린다. 그 모습을 보던 수경이 달려든다. 엄마와 이모가 뛰어말리려고 달려든다.

수경 왜 이래요!

김하사 쪼그만게. 너도 그 서점 아저씨처럼 한 번 혼을 내 줄까, 하 상사 끌려간 곳으로
 가고 싶지. 쪼그만 게 겁도 없이 날뛰고 있어. 성질머리 하고는.

이모 지금 뭐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애한테....

엄마 김 하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하 상사님이 아시면...

김하사 하 상사, 칫. 그깟 상사가 물, 물 해 줄 수 있는데요. 괜히 예비군 중대장 집이네
 어쩌고 하면서 헛 힘 쓰지 말고 정신 차려요. 함바집이고 짬밥이고 다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예비군 중대장, 그것도 감투라고 거들먹거리더니 짤리고...

엄마 네?

수경, 김 하사 팔을 둘어버린다. 김 하사 비명을 지르며 수경을 빼어내려 한다. 그때 전화벨 소리 들린다. 두리번거리고 있던 소년에게 엄마가 손짓으로 전화 받으라고 한다. 소년이 전화 받으러 들어가 있는 동안 김 하사가 수경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엄마와 이모가 말리다가 이모, 바닥에 나뒹군다. 일어서면서 계속 구역질을 한다.

엄마 (이모에게) 괜찮느냐?

이모 어, 언니 괜찮아.

엄마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라고 했잖아. 계속 그렇게 속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
(소년에게) 철아, 어디서 온 전화야? (소년 대답이 없자) 받으면 뭐 아냐. 됐다.
 급하면 또 전화 오겠지. 됐어.

김하사 (수경을 거칠게 밀어내며) 야!

소년 삼, 삼촌이....

엄마 삼촌이 전화했어?

소년 (고개를 흔들며) 아니,

엄마 그러면 삼촌이 뭐? 누구, 누가 전화했어?

김하사 (엄마에게) 가정교육이 엉망이야, 엉망!

수경 (답답한 듯) 어휴, 저 모자리. 전화를 받으면 뭐하나. 뭐라고 그러는데? 누구야
 전화한 사람!

소년 주, 죽었어.

수경 뭐?

소년 죽었대. 삼촌.

엄마, 이모 뭐?

소년 주, 죽었다는데 삼촌.

수경 이 명청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똑바로 말해, 이 명청이가!

엄마, 이모 (소년에게) 무슨 소리야, 뭐가 어떻게 됐다고! 똑바로 말해! 뭐라고!

소년 주, 죽었대. 사, 삼촌, 산판에서. 나무에 깔려서.

엄마와 이모 놀라서 전화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수경이는 소년 팔을 붙잡고 흔들며 똑바로 얘기하라고 소리친다. 그사이에 김 하사 씩씩대며 나간다. 방에 들어갔던 엄마와 이모 통곡하며 마당으로 쓰러질 듯 나오고 대문 밖에서 군용 트럭 지나가는 소리 계속 들린다.

바람 소리 점점 거세지고 마당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하다.

암전

3장 12월 초, 새벽녘

텅 빈 마당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 거친 바람에 슬레이트 지붕이 덜컹거리다가 떨어진다. 축사 쪽에서 들리는 돼지 울음소리.

어두운 방. 희미한 새벽빛이 비쳐 들어온다.

엄마 (어둠 속에서) 수경아, 수경아

수경 으...

엄마 일어나 봐. 수경아.

수경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아, 왜... 아.

엄마 수경아, 일어나 봐. 이모가 안 보여.

수경 어?

엄마 저기, 좀 나가 보자.

수경 어?

엄마 얼른 잠 깨. 일어나.

수경 아, 알겠어.

엄마, 수경의 손을 잡고 방문을 나선다. 마당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이모 이름을 부른다.

축사 쪽에서 계속 돼지 비명 소리 들린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수경아 저, 저리로....

엄마, 수경의 손을 꼭 잡고 채 허둥대며 축사로 향한다. 축사 뒤로 들어가던 엄마와 수경 비명을 지른다.

엄마 (소리) 미경아, 미경아! 아 어떻게 해. 아... 악!

수경 (소리) 엄마, 아... 이모... 엄마, 어떻게...

엄마, 축사에서 축 늘어져 있는 이모를 질질 끌며 나오다 쓰러진다. 실성한 듯한 엄마의 모습.

엄마 수경아, 아버지.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이모가, 이모가....

수경 어디, 어디로 가.

엄마 거기, 여관 아줌마네 집에 있을 거야, 네 아버지. 거기 가서 빨리... 이모... 이모가...

엄마, 이모 몸을 부둥켜안고 흐느낀다. 점점 울음소리 커진다.

수경 알겠어. 엄마, 어, 엄마. 내가 갈테니까... 빨리 병원에. (울면서) 어떻게 해!
어떻게 가지 병원에... 아, 그래. 엄마 저기 위병소, 저기 가서 사정해 봐. 사람
죽는다고 사정해 봐. 그러면 병원 가게 해 줄 거야. 그래, 그래 하 상사 아저씨 이
름 대면 도와준다고 했어. 하 상사... 아, 아니다. 이제 하 상사 아저씨 없지.
아....

엄마 수경아, 수경아! 얼른, 얼른 아버지한테 가서 이모가.... 이모가 농약 먹었다고...
죽는다고, 이러다가 죽는다고.... 얼른... 아니, 아니다. 저기 위병소에 좀...
어떻게... (큰 소리로 악을 쓰며) 저기요! 여기 사람이 죽어요. 여기 사람이
죽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수경 (벌벌 떨면서) 여기요, 여기 사람이 죽어요. 제발요 살려 주세요! 엉엉.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른다. 수경도 그런 엄마 모습을 보며 소리 지른다.

수경 여기요, 여기 사람이 죽어요. 죽어요! 엄마, 이모 빨리 병원에... 어떻게 해.

엄마, 눈물 벅벅이 된 얼굴로 이모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벌떡 일어난다.

수경 엄마!

엄마, 휙휙이며 대문을 열고 뛰어 나간다. 순간, ‘끼익’ ‘쾅’ 하는 소리.

수경 (놀라서) 어, 엄마! 엄마!

위병소 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뛰어 내려 오는 듯한 발 소리. 무대 점점 어두워 진다.
군용 지프차 소리. 암전.

에필로그

뿌연 연기가 마당에 깔린다.

돼지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지프차 지나는 소리와 위병소에서 들려오는 ‘충성’ 소리.
마당에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잔칫상처럼 잘 차려진 톳마루 주변에 서서 하 상사
아저씨와 엄마가 마주 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 삼촌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이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서서히 조명 어두워지고, 무대 희미한 불빛
사이로 수경이 계속 뛰고 있는 모습 보인다.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지만 계속 발은 허공을
헤매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어디선가 소년의 소리만 들린다.

소년 수, 수경아....

뿌연 연기가 걷히고 깜깜한 어둠 속, 마당에 서 있는 소년과 소녀에게만 조명 비친다.

소년 수경아, 가자.

수경 어, 어디로.

소년 어....

수경 어디...

소년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손으로 가리킨다.

수경 달? 저기로 가자고?

소년 아니, 저기 달 따라서....

수경 바보야, 무작정 달 따라 가자고?

소년 삼촌이 그러래.

수경 뭐?

소년 삼촌이 달 따라가래.

수경 무슨 소리야, 삼촌이 언제?

소년 저번에 산에 나무하려 같이 갔을 때, 삼촌이 얘기해 줬어. 삼촌이 산판에서....

수경 뭐? 너한테만 얘기해 줬다고! 진짜, 이 씨. 나한텐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 이 씨.

소년 (살짝 미소) 수경이 너는 놀러 가고, 삼촌이랑 둘이 산에 나무하려 갔을 때....

수경 (빠져서) 그래서, 뭐? 산판이 어쨌다고.

소년 어, 지난 겨울에 삼촌이, 산판에서 발을 빼어서 혼자 산에 있었는데.... 밤이 되었다.

수경 다친 사람을 놔두고 다 갔다고!

소년 괜찮아지면 혼자 천천히 가려고, 먼저 가라고 했대.

수경 미련스럽게, 혼자 힘들게. 삼촌은... 바보같은... 삼촌은...

소년 그런데 점점 추워지고, 무서워서 안되겠다 싶어서, 혼자 천천히 내려 가려는데 사방이 캄캄해서...

수경 그러니까, 혼자 왜! 바보, 등신.

소년 어두운 데서 막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달이 떴대. 은빛 신짝 같은.

수경 뭐? 은빛 신... 뭐?

소년 (미소 지으며) 이뻤대. 달이. 은빛 신짝 같은 달이.

수경 칫... 은빛 뭐? 그래서?

소년 그냥, 걸어갔대 계속 절뚝이면서. 그렇게 달을 따라서 가니까 마을이 있더래.

수경 달을 따라가?

소년 응,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달은 움직이지 않는다. 가고 싶은 데로 걸어가야 달도 같이 움직여 준대. 그래서 기어이 거기에 데려다준대.

수경 기어이....

소년 어, 기어이. 거기에.

수경 ... 삼촌이....

소년 응, 가자, 거기로.

수경 어디.

소년 거기로.

소년과 수경 서로 마주 본다. 두 사람 결심한 듯 발을 뻗다. 몇 발짝 걸어가던 수경이 뒤를

돌아 본다.

수경 그런데 엄마는... 이모는... 어떻게 해.

엄마, 이모, 하 상사의 웃음소리, 삼촌의 기타 소리, 돼지, 닭 울음소리 들리다가 무대 천천히 어두워지고 점점 조용해진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소년과 소녀 걸어 나간다.

암전